



제목	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турец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08-1939 гг.
발행언어	러시아어
발행처	Изд-во Акад. наук СССР
발행일	1959.
저자	Алькаева А.О.
출판도시	Moscow
페이지수	220
ISBN 또는 ISSN	

내용 요약

『1908~1939년 터키 문학사 개관』은 1908년에서 1939년 까지, 약 30년간 터키에서 출간된 가장 유명한 터키 문학작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. 특정 문학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터키 문학의 발전 과정 및 그 시대의 문학 경향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터키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. 저자는 20세기 초반 터키 문학을 1908년~1918년 문학과 1918년~1939년 문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. 1908년 술탄 정부가 발칸반도의 이권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발칸반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자, 청년 투르크당이 혁명을 일으켜 헌법 부활 및 의회제를 도입하였고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참패함으로써 터키 사회는 혼란을 겪게되었는데, 저자는 이런 터키의 국내외적 정세를 설명하면서 이 시대 작품들의 경향을 언급하였다. 또한 그는 그 시대의 작가들을 세 부류로, 즉 범튀르크주의 작가, 오스만주의 작가, 민족주의 작가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작품의 특징을 설명하였다. 그 외에도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들(마흐메드 에민, 외메르 세이페틴, 테브피크 피크레트)의 구체적인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문학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보여주었다.

1918~1939년에 터키는 서구 열강의 점령, 민족 해방전쟁, 공화국 건립이라는 또 한번의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의 터키 문학은 민족의식 고취, 민족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. 이 시기에는 케말리즘이 사회 전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기에 문학에서도 이 이념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들이 대다수였다. 저자는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인 레샤드 누리, 레샤드 에니스, 아카 쿨뒤즈, 할리데 에덱, 야쿱 카드리외의 작품들도 살펴보았다.